

섬김: 착한 사람의 일

성경 본문	사도행전 4:32~37, 11:19~26
요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11:24).
찬송	191장(통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323장(통 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이과의 목표	바나바가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섬김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최근에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당신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II. 생각 넓히기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섬김을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적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성향과 지시에 따라 기꺼이 일하고 행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교회 내에서 섬김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정의한 섬김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가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 주라”(고전 16:17-18).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자신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며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말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세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 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더 힘을 내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32-35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한 후, 사도들에 의해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헌금으로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가 왜 특별히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 보겠습니다.

1.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상의 큰 섬인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으로서 그의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는 대신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셉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떤 모습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공동체를 위해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린 것은 단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현금으로 내어놓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그와 같이 자기 소유를 팔아 현금으로 내어 놓은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보상 심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에게는 그러한 보상심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이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면 사도들에 의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리가 만무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여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게 합니다(행 11:19-26).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막 생겨난 신생 교회이기에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교회로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36-40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크게 다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자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시에 자기들을 떠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시 왜 중도에 포기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를 격려해 다시 세워주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행적들은 그가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위로(격려)의 아들’이라 불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행 11:24). 여기에서 ‘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토스’로서 ‘놀라다’(wonder), ‘높이 평가하다’(think highly), 감탄할 만한’(admirable)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할 정도로 바나바의 인격이 훌륭했다는 말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착한 성품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뛰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헬라파 유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으로 인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분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제와 관련된 일을 맡길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합니다. 이때 그 일곱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사도들이 제시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이었습니다(행 6:3 참조). 구제하는 일로 교회를 섬길 일곱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겉으로 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배 참석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공동체에 위로와 격려가 되기는 커녕 공동체에 근심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합니까?”라는 젊은 목사의 질문에 “착한 사람을 세우세요”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잘 벌고, 교육 수준이 높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며,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해 착한 사람으로 인정 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특별히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면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행 13:1 참조).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을 차별하지 않는 다양성이 공존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사역하기에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적격이었기 때문입니다.

3.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행 11:24).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나바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밭을 팔아 헌금을 드린 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한 한 가지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그가 사람들의 경탄을 받을만큼 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나바가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던 안디옥에 이르러 성도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동안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자 그에게 함께 동역할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바나바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울을 택하셨고(행 9:15 참조), 바나바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행 9:27 참조).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심은 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울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미 검증된 훌륭한 사도들이나 다른 리더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무명의 사람 사울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준 것은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처음으로 공적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후로 바울로 불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사울에게 나아간 일은 그가 교회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섬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바나바에게 맡기신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감동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III. 생각살기

1. 바나바의 삶을 통해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